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가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창식*, 장하영**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The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on Donation Motive and Attitude of Adolescents

Chang-Seek Lee*, Ha-Young Jang**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Dept. of Lifelong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가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S시, D시, T군 및 H군 4개 지역에서 청소년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기부태도는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및 기부동기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 모두 기부동기를 완전 매개로 하여 기부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기부동기, 기부태도, 기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on donation motive and attitude. For this study, 901 adolescents were surveyed in four areas of Chungnam province.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it was found out that donation attitude was higher in female adolescents than male adolescents, and in high school studen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 sense of community,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donation motive, and donation attitude. Third, as a result of SEM, donation motive was fully mediated between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and donation attitude as well as between a sense of community and donation attitude.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olicy implication for the activation of donation were presented.

Key Words : Adolescents, A sense of community,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Donation motive, Donation attitude, Donation

Received 2 March 2017, Revised 3 April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Ha-Young Jang
(Dept. of Lifelong Education)
Email: besof@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기부란 자기 자신보다 사회의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나누는 행위를 말하며[1], 기부자들은 기부를 통하여 자신감, 위신, 명예 등의 사회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2]. 따라서 기부문화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 나라의 복지,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3].

우리나라에서도 기부 문화가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다[4]. 하지만 청소년들의 기부 행위는 성인에 비하여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5]. 이는 기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인데[6], 그 이유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다[7]. 하지만 청소년기는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갖추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5,8].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학습해야 하며 이는 기부 행위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5].

청소년들의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기부 총액에 관하여 객관적 보고는 부족한 편이나 이들의 기부 경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 중 30.1%가 기부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 물질기부인 현금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9]. 시간기부인 자원봉사활동은 54.7%로 보고되었다[4]. 한편, 최근 부각되는 재능기부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기부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 중에 있다[5]. 그러므로 청소년 기부행위는 물질기부, 시간기부, 재능기부 등으로 구분되고 양적으로도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부행위에는 기부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다[10,11]. 또한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적인 기부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11,12]. 따라서 기부태도는 기부 행위의 빈도와 지속성 면에서 매우 유의한 변인이다. 이러한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 요인으로 공동체의식 및 기부기관신뢰 등이 밝혀졌으며, 개인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기부동기가 밝혀졌다.

공동체의식은 일정 지역에서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 즉 봉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3]. 선행연구

에 의하면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기부태도 뿐만 아니라 기부동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기부기관신뢰는 기부대상기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며, 기부자의 기대만큼 기부기관이 목적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6]. 따라서 기관신뢰는 다른 요인에 비하여 객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대한 영향력은 일관성을 보인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부기관신뢰는 기부태도와 기부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16,17].

기부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부를 인식하여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14],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행동 자체가 목적인 내재적 기부동기와 사회적 위신이나 지위가 목적인 외재적 기부동기로 구분된다[18].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기부동기는 기부태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기부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9,20,21].

이처럼 기부태도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기부 심리 및 사회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도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성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심리적 변인과 기부행위와의 단편적인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기부태도와 관련한 변인을 밝혔던 연구는 극소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밝혀진 청소년들의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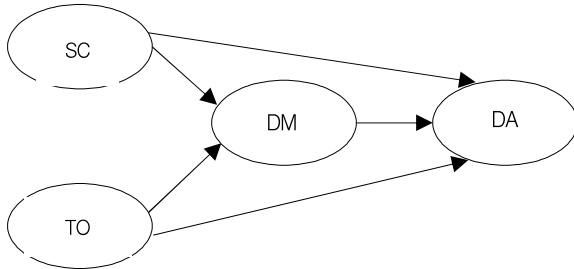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기부 관련 변인인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의 경로 관계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가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관 신뢰와 기부태도 간의 관계에서 기부동기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의 S시, D시, T군 및 H군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01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학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401명(44.7%), 고등학생이 497명(55.3%)로 고등학생이 많았고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13세~19세였고,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5.2세(SD=.75),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7.7세(SD=.53)였다. 또한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도시’라고 응답한 학생이 267명(29.6%), ‘농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33명(70.4%)으로 ‘농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끝으로 이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285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는 90명(9.9%), 천주교는 47명(5.2%), 기타 20명(2.2%) 순이었고 나머지 459명(51.0%)은 무종교였다.

2.3 연구도구

2.3.1 공동체 의식

은지용[22]과 주주자[23]의 척도를 최영아[24]가 재구성한 것으로 총 8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문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3으로 나타났다.

2.3.2 기부기관 신뢰

Drollinger[25]가 개발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 척도를

김유나[26]가 국내 환경에 맞게 번안한 것으로 연구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0으로 나타났다.

2.3.3 기부동기

내재적 기부동기는 하회정[10]이 개발하고 김미숙[14]이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 대상에 맞게 4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답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의 기대감보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기부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46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기부동기는 조휘일[27]이 개발하고 유수진[2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답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신이나 지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4로 나타났다.

2.3.4 기부태도

기부태도는 Salamon[13]이 개발하고 유수진[21]과 하회정[10]이 수정한 척도 중 연구 대상에 맞게 5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행동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98로 나타났다.

2.3.5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연령, 학교급, 거주지, 종교를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비교분석,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1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부태도가 유의하게 높았고($t=-3.325, 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099, P<.01$).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기부태도에 차이가 없었고($t=1.312, p=.190$), 종교에 따라서도 기부태도에 차이가 없었다($F=.415, p=.743$).

<Table 1> Differences in donation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901>

		Donation attitude		
		N	Mean (SD)	t, F
Gender	Male	401	3.60(.77)	-3.325**
	Female	497	3.76(.66)	
School level	Middle school	401	3.61(.70)	-3.099**
	High school	497	3.76(.71)	
Residence area	Town	267	3.74(.74)	1.312
	Rural	633	3.67(.70)	
Religion	Protestant	285	3.72(.67)	.415
	Catholic	47	3.62(.83)	
	Buddhism, etc	110	3.69(.76)	
	None	459	3.68(.72)	

** p<.01

3.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및 기부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계수와 기술통계 값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p<.01$),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은 상관($r=.633, p<.01$)을 띄었다.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와 기부태도($r=.553, p<.01$), 내재적 동기와 기부태도($r=.500, p<.01$), 공동체의식과 외재적 동기($r=.488, p<.01$), 공동체의식과 내재적 동기($r=.445, p<.01$), 공동체의식과 기부태도($r=.395, p<.01$),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r=.388, p<.01$), 기부기관신뢰와 내재적 동기($r=.323, p<.01$), 기부기관신뢰와 외재적 동기($r=.316, p<.01$) 순이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5.
1. A sense of community(SC)		1				
2.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TO)		.432**	1			
Donation motive (DM)	3. Internal	.490**	.351**	1		
	4. External	.547**	.360**	.624**	1	
5. Donation attitude(DA)		.443**	.293**	.472**	.593**	1
	Mean (SD)	3.31 (.68)	2.92 (.78)	3.61 (.76)	3.70 (.69)	3.69 (.71)

**p<.01

3.3 전체 측정모형 검증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적합도 지수로 $\chi^2=1170.983, df=201, \chi^2/df=5.826, GFI=.912, IFI=.914, CFI=.914, RMSEA=.063$ 으로 나타나, χ^2 를 제외한 주요 지수가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내재적 기부동기, 외재적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를 구성하는 각 변수의 표준화 계수도 .564~.854로 모두 .50 이상을 충족하였고, 모두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잠재 변수의 분산추출지수(AVE)는 기부태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516~.682로 .50 이상이었고, 개념 신뢰도(CR)는 .733~.893으로 .7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4 가설모형 경로검증 결과

분석결과 연구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chi^2=6.796, df=2, \chi^2/df=3.398, GFI=.997, IFI=.997, CFI=.997, RMSEA=.052$ 로 나타나, 주요 지수가 모두 적합하였다.

<Table 3> Test of goodness of model fit

χ^2	df	χ^2/df	GFI	IFI	CFI	RMSEA
6.796	2	3.398	.997	.997	.997	.052

따라서 연구모형을 수정 없이 받아들였고 경로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를 [Fig. 2]와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별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의식은 기부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 = .564, p < .001$) 기부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5, p = .896$). 기부기관신뢰도 기부동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 = .195, p < .001$), 기부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7, p = .832$). 하지만 기부동기는 기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79, p < .001$).

<Table 4>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B	β	S.E	C.R
SC → DM	.459	.564	.031	14.776***
SC → DA	.006	.005	.043	.131(p=.896)
TO → DM	.140	.195	.024	5.751***
TO → DA	-.006	-.007	.029	-.213(p=.832)
DM → DA	.871	.679	.067	13.012***

3.5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및 기부동기가 기부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는 기부동기를 완전 매개로 하여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C → DM	.564		.564
SC → DA		.383	.383
TO → DM	.195		.195
TO → DA		.132	.132
DM → DA	.679		.679

3.6 매개효과 검증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가 기부동기를 매개로 하여 기부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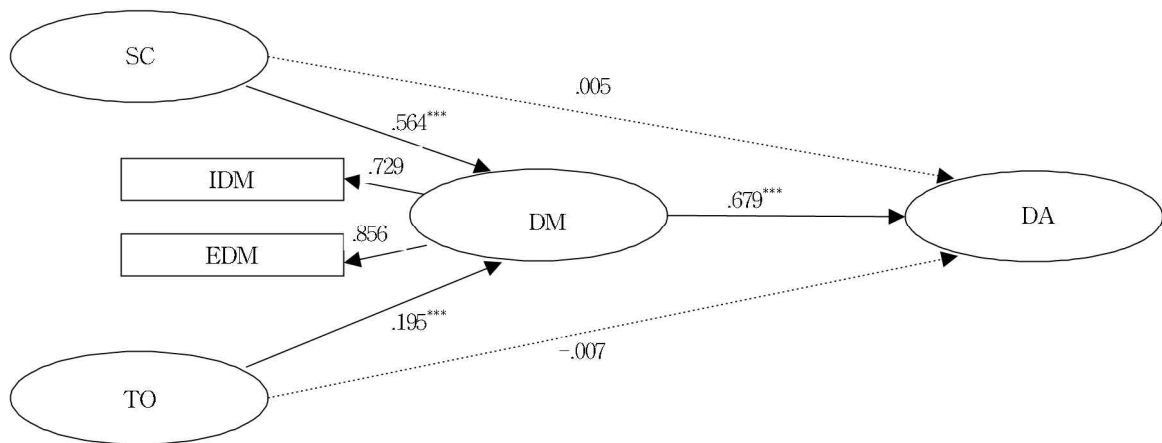
<Table 6> Bootstrap test of multiple mediating effects

Path	Estimate	SE	p	95% Interval
SC → DM → DA	.383	.041	.002	(.311 ~ .477)
TO → DM → DA	.132	.028	.004	(.083 ~ .191)

4. 결론 및 논의

청소년의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1,6,16].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심리적인 면에서 남학생보다 자기희생적이고 양육적이라는 이타주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28]. 따라서 나눔 교육은 성별에 따라 달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남학생의 기부태도 증가에 더 많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숙의 영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도가 증가하므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기부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2] Structural path model among variables

성숙의 한 영역인 자아존중감이 기부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29]를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지지된다.

둘째,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기부 관련 변인끼리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부태도에 공동체의식, 기부기관신뢰 및 기부동기 모두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부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부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반면 기부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규명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 모두 기부동기를 완전 매개로 하여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공동체의식, 기부태도 및 기부기관신뢰와 기부태도의 직접적 영향력을 밝혔던 연구결과[12,14,15,16,17,19,20,21]보다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다. 즉, 기부와 관련된 심리, 사회적 요인은 기부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만 기부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기부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우선은 기부동기 관련 교육이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나눔 교육보다는 기부동기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기부태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기부동기가 밝혀졌으나 설명력을 고려해보면 그 외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일부 집단에 한정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표집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구대상을 초등학생과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학교급에 따른 비교연구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기부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혀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청소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유용할 것이다.

REFERENCES

[1] E. H. Kim, "A study on effect on contribute attitude

about the Social Contributions Contributors of priori factor and Donation Motiv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2012.

[2] K. H. Chun, & Y. G. Hong, & M. A. Yoon, & I. S. Song,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ethical consumption", Seoul: Sigmappress, 2014.

[3] J. Y. Kim, & D. S. Kim, "Effects of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on donation behavio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2 , pp.401-430, 2013.

[4] Giving Korea 2015, <http://beautifulfund.org> (Feb 20, 2017)

[5] C. S. Lee, & K. B. Song, "A study on the donations and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2, pp.725-734, 2013.

[6] M. H. Ryu, "A study on adolescent consumers' donation attitude and donation inten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3, No. 6, pp.97-113, 2015.

[7] J. M. Choi, "The role of Christian parents in the recovery of the Church's public responsibility in the education sector", Mission and Theology, Vol. , No. 40, pp.479-506, 2016.

[8] U. O. Baek, & J. K. Kam, "Influence of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on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volunteering and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motivation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4, No. 1, pp.109-134, 2016.

[9] Korea's social indicators, www.kostat.go.kr (Feb, 20, 2017)

[10] H. J. Ha,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donation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ju University, 2004.

[11] K. S. Park, & D. W. Kim, "A study on the variable factors affect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sustained donation", Civil Society and NGO, Vol. 10, No. 2, pp.221-248, 2012.

[12] J. S. Ha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stainable dona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2004.

[13] T. S. Jeong,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1, pp.183-188, 2016.
- [14] M. S. Kim,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with adolescents’ donation motive and attitude toward do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2013.
- [15] H. S. Kim, “The effects of consumers’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donation attitude and behaviors toward charity organiza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2014.
- [16] S. H. Cho,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affect donation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09.
- [17] E. W.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individual dona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 [18] C. S. Lee, & M. H. Shin, & Y. W. Lee, & H. Y. J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young people’s donation attitude: A comparison of school level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9, No. 43, pp.1-7, 2016.
- [19] S. H. Kim,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on the on-line donation behavior and attitude: Focused on the 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cyber mone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 [20] S. B. Kim, & B. Ryu,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itualization between private donor’s motivation and attitude”, Korean NPO Review, Vol. 11, No.1 pp.161-190, 2012.
- [21] Yoo, S. J,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hilanthropy: focusing on Seoul citize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22] G. Y. Eun, “Reflection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eer services on citize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 [23] J. J. Ju,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on promoting sense of community in soci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24] Y. A. Choi,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on the cultivation of the senses of community and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05.
- [25] T. L. Drollinger,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monetary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97.
- [26] Y. N. Kim, “A Study on the donations and philanthropic effor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focus of on-line-don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02.
- [27] H. L. Cho, “A study o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traits related with volunteer activities in the area of Korea social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1991.
- [28] Y. G. Kim,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line donation behavior to char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03.
- [29] N. S. Kim, “A Study of giving strategies by analysis of giving stimulu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No. 28, pp.133-155, 2009.

이 창 식(Lee, Chang See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장 하 영(Jang, Ha Young)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과 (이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